

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2. 6. 19
 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진흥팀
 팀 장 : 윤 원 습
 사무관 : 김 기 환
 전 화 : 500-1959
 쪽 수 : 2P
 별첨자료 : 있음(1P)

이 자료는 2012년 6월 20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동물류로 농식품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

- 주요 수출노선별 전문물류업체 선정을 통한 해상운송비 절감 -

〈 주 요 내 용 〉

◇ 주요 농식품 수출 노선별로 공동물류를 담당할 물류주선업체를 선정, 물량 규모화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해상운임 절감 유도

* (시범노선) 부산-도쿄, 부산-시모노세키, 부산-오사카, 부산-기류(대만), 부산-LA

□ 농식품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농림수산식품부(장관 서규용)는 농식품 수출확대 및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,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동 물류*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* 공동물류 : 국제 해상운송을 담당할 전문 국제물류주선업체를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물류를 공동화한다는 의미로 사용

□ 「수출 공동물류 활성화 사업」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를 통해 농식품 주요 수출 항로별로 공동물류를 담당할 역량있는 물류업체를 선정하고, 수출업체들의 이용을 주선함으로써 물량규모화에 따른 해상운임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○ '12년은 수출업체의 이용수요가 높은 5개 해상노선(부산-도쿄, 부산-시모노세키, 부산-오사카, 부산-기류(대만), 부산-LA)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 사업 수요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 노선을 확대해갈 예정이다.

□ 그간 소량 다품목을 수출하는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해상운임 부담이 높아,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특히 최근 해상 컨테이너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여서 중소 수출업체는 사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* 세계 컨테이너 시장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는 상해항운교역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(CCFI,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)에 따르면 '12.6.1일 지수는 1,325로 '11.6.10일 1,000 대비 32.5% 상승

□ 물류업체의 사업 참가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(www.at.or.kr)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으며, 신청서 접수기한은 6월 29일까지다. 수출업체 모집공고는 7월 9일경에 aT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.

공동물류활성화 지원사업 개요

1. 목적

- 주요 수출항로별 공동물류를 담당하는 물류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물량 규모화에 따른 수출업체의 해상운임 절감 도모

2. 사업 개요

☐ **운용노선** : 수출업체 설문조사('12.2월)시 수요가 높은 5개 해상노선

- ① 부산-도쿄 ② 부산-기룡 ③ 부산-시모노세키 ④ 부산-LA ⑤ 부산-오사카

☐ **참여요건**

- 물류업체 : 국제물류주선업체(복합 운송주선업체)로 등록된 업체로서, '11년 연간 해상운임 수수료 실적 10만불 이상인 업체
- 수출업체 : '11년 농수산물 수출 실적 10만불 이상인 업체

☐ **업체선정**

- 물류업체 : 1·2차 평가를 통해 노선별 2개 물류업체 최종 선정
 - 1차 : 해상운임을 저가순으로 제시한 4개 업체를 예비업체로 선정
 - 2차 : 노선별 4개 예비업체 대상으로 수행역량 평가
- 수출업체 : 5개 운용노선을 통해 운송예정 물동량이 많은 순으로 선정
 - '12. 7~11월 중 운송예정 물동량의 30% 이상 위탁

☐ **인센티브** : 국내발생 THC(Terminal Handling Charge)

- 수출업체 참여유도를 위해 사업 참여물량에 대한 THC 지원(예산 한도 내)
 - * 수출물류비 지원 물량, 수산·임산물, 대기업 물량은 인센티브 지원 제외

3. 향후 일정

- 6. 20~29 : 물류업체 모집공고
- 7. 9~18 : 수출업체 모집공고